

배포

2026. 06. 10.(수) /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추진 지자체 대상 컨설팅 지원

- 지자체가 수립한 지역활력타운 사업의 구상, 계획에 대한 무상 컨설팅 제공

□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오늘부터 ‘지역활력타운’ 조성사업 추진 지자체*를 대상으로 무상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.

* 지방권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(수도권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)

○ ‘지역활력타운’ 조성사업은 주거·생활인프라·생활서비스 등을 결합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,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.

□ LH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상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.

○ 올해부터 공모 방식이 아닌 자율 신청 방식*으로 전환됨에 따라, LH는 지자체별 사업 준비 시점에 맞춰 신속한 컨설팅이 가능토록 컨설팅 조직을 마련해 운영한다. 아울러 토지주택연구원(LHRI)과 협력해 컨설팅의 전문성도 높였다.

*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사업을 선택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

○ 컨설팅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구상하거나 계획하는 단계에서 목표, 계획, 타당성, 수요, 실현성, 거버넌스, 효과성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.

○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LH 담당자에게 제출하면,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쳐 대면이나 온라인으로 컨설팅 결과를 전달한다.

-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“지역활력타운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LH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지방이 인구가 늘고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	지역균형계획처	책임자	팀 장	강진구	(055-922-4662)
		담당자	차 장	이동환	(055-922-4676)
			과 장	김예주	(055-922-4673)